특집
좌담회

'93 포장산업의 결산과 '94 전망

일본포장관리사회는 93년도 일본 포장업계 10대 뉴스에서
자국 포장업계가 93년도 한 해 '미증유의 시련기' 였음을 제일 첫째로
꼽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뒤의 경기 후퇴, 엔고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내 포장업계 사정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구랍 16일 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각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를 통해 93년도 국내 포장산업의 회고와 94년도 전망을 들어본다. 〈편집자〉

■ **참석자** : 공창원 / 한일제관(주) 영업관리부 계장
김선창 / 남경화학공업(주) 대표이사
김창균 / 신화기계공업(주) 대표이사
김태성 / 두산유리(주) 용기사업본부 영업부장
나근배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지원사업부 부장
조병묵 /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교수
■ **사 회** : 곽영구 / (사)한국포장협회 상근부회장
■ **일 시** : 1993년 12월 16일
■ **장 소** : (사)한국포장협회 회의실
■ **정 리** : 오선진·이선하 기자

사회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포장협회에서 펴내고 있는 월간 『포장정보』의 신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93년도 국내 포장산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94년도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93년도는 국내외적으로 환경변화가 어느 때보다 급격했던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밖으로는 EC 시장통합과 NAFTA의 등장, 우루과이 라운드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폭이 컸으며, 안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 부문에서 개혁의 몸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전격적 실시와 시장개방,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업체의 부도 속출 등 새 정부의 신경제 정책 추진 하에서도 경제회생의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산업 전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 업계도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부문별로 93년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산업의 소재면에서 볼 때 지류가 가장 범위가 큰 것으로 아는데 이 부문에 대해 93년도 수급 현황과 사용비중, 원료 수급 현황 등에 대해서 조병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93년도 포장산업 현황

조병묵 : 우리나라 제지산업은 92년말 기준으로 생산량이 550만톤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적 용도가 350만톤이었고, 문화적 용도로 쓰인 것이 200만톤 정도였는데 점차 산업적 용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류포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판지인데 과거 10년전의 분당 100m에 불과했던 생산속도가 오늘날에는 분당 250m까지 고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저온접착제의 개발 등 품질 향상의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지산업이 안고 있는 취약점은 종이원료인 펄프의 자급률이 10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지업계를 비롯해 지류를 사용하는 포장업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 우리나라 펄프 자급률이 10퍼센트 밖에 안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조병묵 : 온산에 소재한 동해펄프가 시설 증설로 연산 2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펄프공업은 대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인데다 신규 공장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포장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판지의 경우 국내에서는 버진펄프보다 전량 수입된 리사이클 화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낮은 펄프 자급률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고지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적인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92년 국내 고지 사용량은 270만~300만톤 정도인데 국내 충당분은 170만~180만톤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림자원의 육성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절약 측면에서 포장의 경량화, 체적의 최소화, 고기능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류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 : 최근 2~3년 계속된 경기 후퇴로 연포장산업이 많이 위축되었던 걸로 아는데 김선창 사장님께서 93년도 현황에 대해서 개괄해 주시지요.

김선창 : 경제가 계속 어려워서 그런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투자에 인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중소기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오다 보니 레진업체들이 상당수 등장했고, 그 결과 레진값이 떨어져 원료값이 안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설비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끼리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2달러인 플라스틱 필름 가격이 국제시장에서는 1달러 35센트에 불과하는 등 한국 상품은 '두들길수록 가격이 낮아진다'고 인색돼 있어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소재수출은 가능하지만 가공수출은 어렵다는 것인데, 국내 업체들이 '본전이라도 뽑겠다'는 식의 수출로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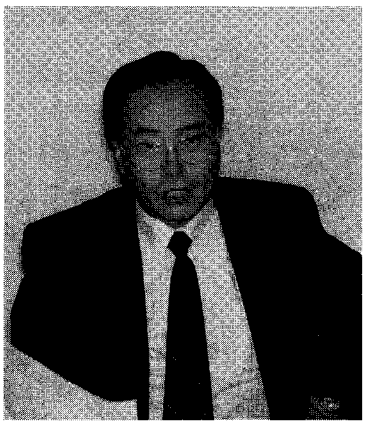
요컨대 93년도에는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해외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인해 바쁘기만 했지 경영수익상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었으며 다만 한국상품의 이미지만 나빠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 : 과당경쟁은 우리의 30년 무역역사에서 마치 필요악처럼 뿌리 깊게 존재해온 게 사실입니다. 제관업계도 93년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창원 : 사실 제관업계도 과당경쟁이 문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관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캔의 경우 80

조병묵

국내 제지산업이 안고 있는 취약점은 펄프 자급률이 10퍼센트 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고지 회수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포장의 경량화 및 체적의 최소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선창

연포장산업은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해외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국내 기업간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실익을 챙기지 못한 것은 물론 한국상품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년대 중반 이후 10~20퍼센트씩 성장해 왔으며, 특히 80년대 말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음료회사들이 곤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후 제관사들이 자동화 라인 증설을 많이 해 91년에 9억5천만 캔, 92년에는 6억5천만 캔, 93년에는 3억 캔 정도로 증설했으며, 94년도엔 4억5천만 캔 정도의 생산시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제관업계의 단기간에 걸친 시설 과잉으로 91년 이후 내수 경기 부진, 여름 기상의 이상으로 인한 성수기 판매 저조, 금융실명제 영향 등으로 인해 93년도에는 내수시장이 약 5퍼센트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자연 수출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최근 음료소비가 늘고 있는 중국시장에의 진출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앞서 현지 시장정보 등 사전 자료조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수출을 추진하다보니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3년 10월 말 현재 중국에 약 2,500만달러, 수량으로는 2억5천만 개를 수출했는데 업체간 가격 조정이 안돼 처음 진출할 때보다 10퍼센트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캔 가격을 점차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가격이 깎이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회 : 알루미늄 캔과 스틸 캔의 구성비와 시장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창원 : 현재 국내에서는 알루미늄 캔과 스틸 캔의 생산비율이 85:15 정도입니다.

제관산업의 소재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보면 스틸 캔이 100퍼센트인 반면 알루미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삼양금속이 캔용 판재공장 준공을 끝낸 상태에 있는데 기술적인 보강을 마치는 94년 말에나 생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 : 93년도 상반기에 스틸 캔의 재료인 콜드롤이 중국에 대량 수출됨으로써 국내 업체에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소재는 싸게 수출하고 가공제품은 경쟁해야 하는 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공창원 :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철강공장이 포항제철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수출도 종합상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가보다 제품값이 20퍼센트 정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경쟁력이 뒤질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 중국에 제관공장이 생기면서 인쇄스판 상태를 원함에 따라 제관사들이 철강회사에서 인쇄스판을 공급받아 수출하는데 종합상사가 스판을 수출하는 가격보다 쌉니다.

사회 : 이러한 문제는 플라스틱산업 분야에서 더욱 실감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시설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데, 석유화학 같은 장치산업의 시설들은 계속 가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수출가격과 국내 로컬가격, 내수 판매가격 등이 각기 다른 현실입니다. 나근배 부장님께서 플라스틱산업의 전반적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나근배 :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산업도 시설과잉으로 원자재 가격의 덤핑이 심각했으며, 그밖에 인력수급 문제와 경기부진, 환경부담금 등으로 인해 도산한 업체도 속출했던 게 사실입니다.

플라스틱산업 분야의 원자재 국내 수요량을 보면 92년에 3백만7천톤, 93년에는 3백9만3천톤 가량으로 2.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원료 총생산량은 5백41만7천톤으로 이 가운데 2백40만톤 정도가 수출되었습니다.

사회 : 소재 국산화율이 가장 높고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인 유리용기산업

분야의 93년도 현황은 어떠했는지 김태성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성 : 지금까지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모두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유리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93년도를 개괄해 보면 경기 침체로 주류제품 소비가 줄어 맥주의 경우 전년대비 30퍼센트 감소했고, 드링크류는 15퍼센트 감소한 반면 섬유음료는 20퍼센트 정도 증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청량음료는 크게 감소해 신병을 따져 10퍼센트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체 주스류 소비도 감소되었으나 능금주스 등 신제품은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93년 전체용량은 1일 3천톤 정도 되는데 실제 가동은 2천3백톤으로 가동률이 76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두산 뿐만 아니라 삼광, 일화 등이 병 전용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만 12월부터 경기가 서서히 소생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사회 : 멀리서 와주셨는데 김창균 사장님께서 93년도의 포장관련 기계기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창균 : 전체적으로 포장재 업계의 불황이 심하다보니 관련 기계업계에도 그 불똥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이처럼 업계가 불황에 허덕이다보니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포장재 업계에서 신제품 개발에 눈을 돌려 관련 기계업계에도 그 영향이 다소 미쳤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소로트 다품종을 요구하는 업계의 전반적 추세에 따라 기계의 고급화와 자동화가 필요한데 제작업체의 한계 등으로 실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국내 포장기계업체는 2백여개의 메이커와 수입업체 1백여개사가 7천억~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내수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회 :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체로 정리해 보면 93년도에는 장기적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포장업계에 전반적 가경경쟁이 심했고, 특히 해외시장에서조차 국내 업체간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기업의 유보이익이 없어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력문제도 부수되어 있어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포장산업은 관련 영역이 넓고 기술의 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수급문제가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 우리는 포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관련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이른바 '3D 업종'으로 갑싼 외국인력 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외국인력 고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포장업계의 전반적인 인력수급문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지요.

포장전문인력 양성과 수급문제

김선창 : 인력문제 해결은 매우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우선 우리 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상층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밑이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먼저 불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편견없는 인격적 대우가 필요하겠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인력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위 '화이트 칼라' 위주로 존속돼왔던 직제 대신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직제로의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결과가 없기 때문에 뭐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요컨대 인력수급 문제 해결의 가장 주안점은 인격적인 대

▼

나근배

플라스틱산업은 93년도에 시설과잉으로 원자재 가격의 덤핑이 심각했으며, 그밖에 인력수급 문제와 장기적 경기 부진, 환경부담 요인 등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창균

국내 포장기계 업계는 2백여개 메이커와 수입업체 1백여개사가 7천억~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계업계도 내수시장 확대의 한계로 수출에 적극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직제의 마련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균 : 작업현장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인력양성에 따른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싶으면 보따리를 싸고 더 나은 조건을 좇아 가는 풍조가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선창 사장님 말씀 대로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주와 종업원이 노사라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서 있기 보다는 한 식구라는 공감대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인력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제관산업은 장치산업으로 고급 인력도 많이 필요할텐데 제관사들의 인력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청원 : 제관시설은 첫 공정에서부터 마지막 제품 포장단계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입 기계 설비이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면 아주 간단한 것 아니고는 외국 기술자를 데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비수기에 정기적으로 해외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기술연수를 다녀와서는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당 회사의 손실이 큼은 물론 업계 전반을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생산직에서 이직이 심한 것도 사실인데 무엇보다 장래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격적 대우를 포함해서 회사에서도 현장직 사원을 위한 비전 제시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김태성 : 유리산업은 제관분야보다 인력수급 조건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작업환경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직제나 대우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기계의 자동화와 고기능화, 간편화를 도모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에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전문교육도 활성화시켜 인력양성에 대처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나근배 : 플라스틱산업 분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야간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력 고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의 경우 외국인력 채용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인력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체 산업체에서 2만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현실적 수요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계만을 조사한 바로는 대략 9천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력 고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정책적용엔 편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지요.

사회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장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한 상태인데, 교육계에 몸 담고 계신 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 의견을 들려 주시지요.

조병묵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3D업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지업종만 보더라도 장치산업이라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한 기계가 고속화되어 고급인력이 요청되는 게 사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받아 온 교육과 현장의 내용이 판이하기 때문에 하나

에서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산업 전체로 보아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을 실제적인 내용으로 개편하고 산·학 연계를 긴밀히 해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 기능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문화적 풍요와 자기개발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 : 저희 포장협회도 기능공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관련 협회나 조합, 단체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에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생각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일방의 노력보다 정책 당국과 업계, 소비자 모두가 노력할 때 환경문제 해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업계에서 환경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플라스틱산업을 제일 먼저 문제시하고 있는 게 현재의 솔직한 풍토인데, 나 부장님께서 조합의 환경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지요.

포장산업의 환경대응과 문제점

나근배 : 정부에서 내놓은 재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업종별 재활용 목표율을 정해 놓고 있으며, 용기제조업체에게는 생산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을 1천톤 이상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는 사용량의 5퍼센트를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PET병과 PSP 등 생산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추진의 관건은 목표수치 설정에 있기보다는 회수에 있는데, 관련 정책기관에서는 회수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협력해서 실질적인 회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수방법에 대해 다시 강조하자면 업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당국과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합치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조병묵 : 합성수지는 재활용 목표율이 5퍼센트이지만 종이는 47퍼센트를 재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요컨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것이냐 재활용이 목적이냐 하는 것인데 정부의 시각과 업체, 국민들의 시각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처의 방침은 쓰레기 처리 방법에 주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종이가 수집돼 제지공장에 오면 무조건 재생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대부분 수집돼 오는 종이는 쓰레기더미이기 때문에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달리 말해서 체계적인 수집과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추진하는 정책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먼저 실마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 그러한 문제는 제관업계도 마찬가지 사정일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공창원 : 제관업계는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캔 리사이클링을 위한 업계 차원의 대책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뒷받침으로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 차량 운영과 분리작업 등을 할 수 있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

공창원

국내 스틸 캔 재생률은 8.4퍼센트, 알루미늄 캔은 7퍼센트 밖에 안됩니다. 수집체계의 미흡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캔을 압착·분리할 수 있는 장치와 운송차량 등이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제관업계는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음료메이커와 협력해 리사이클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최근 두산그룹이 경월소주를 인수하고, 또 진로그룹도 맥주시장에 신규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류시장의 판매전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용기시장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캔 재생비율을 보면 스틸캔은 8.4퍼센트, 알루미늄 캔은 7퍼센트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캔의 수집도 문제지만 캔을 압착 분리할 수 있는 장비와 운송체계가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제관, 음료메이커가 협력해 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 유리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리용기산업의 환경대응 동향과 재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성 : 우선 유리용기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맥주병이 93퍼센트, 소주와 청량음료병 등이 88퍼센트 수준입니다.

유리병이 환경에 우수한 제품이지만 앞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이쪽도 회수 체계의 미흡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를 내세워 재활용을 추진하려면 회수 체계 마련과 유리병의 규격화 등 효과적인 방법들이 먼저 모색되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서 정책만 따르라는 이야기 밖에 안들려요. 특히 유리병의 규격화는 회수해 특별한 분리작업 없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업계는 유리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리사이클링 시스템인 '파유리 재활용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차후 장기적 과제로 유리재생가공공장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5퍼센트의 파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참고로 91년도 유리병 재활용률은 47.4퍼센트입니다.

끝으로 환경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 나가려면 환경친화적인 용기 사용의 의무비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병묵 : 한 마디 덧붙이자면 재활용이 능사는 아니고 Echo Valance 측면에서 매립이나 소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학회나 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계몽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재생공사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그 역할과 성과가 기대보다 못미쳐 왔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포장재 분야도 폐기물 처리문제가 골치거리인 것으로 아는데 김선창 사장님께서 그쪽 분야의 환경대응 제품 개발동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선창 : 우리 업계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활용이나 소각 모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걸친 포장테크닉, 마케팅 개념부터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과대포장을 줄이고 복층 필름의 겹수도 낮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라비어 인쇄도 지나친 다도 인쇄는 지양하는 게 환경을 고려하는 게 되겠지요. 덧붙여 지금도 그러한 노력이 계속 경주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좀더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93년도 포장산업을 회고하고 업계의 인력수급 및 양성문제, 환경대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각 업계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 주시죠.

'94년도 포장산업의 전망과 과제

조병묵 : 제지업계는 93년도에 전체적으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 영세업체의 병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

원이 어려워 시설자동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급화에 대한 요구, 또 시장개방 물결에 따라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상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근배 : 94년에는 플라스틱 원자재 총생산량이 5백83만톤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국내 수요는 3백25만9천톤으로 93년대비 5.3퍼센트, 생산은 1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94년에는 농업용 필름, 용기류, 시트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파이프 등 산업용자재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회수체계와 재사용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원료메이커간 카르텔 형성도 주목거리입니다. 최근 설립된 저희 프라스틱기술연구조합 활동으로 현재의 KS보다 상위 품질을 보증하는 단체규격을 정할 예정이며, 환경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용융기나 압축기를 공동설치하고 재생공장 활성화 등 협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성 : 저희 유리용기업계를 보면 12월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94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경월소주를 인수해서 진로그룹과 치열한 주류시장 판매전이 예상되며, 진로도 맥주시장에 신규참여함으로써 맥주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그룹간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기시장도 자연 확대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공창원 : 94년에는 중국시장이 활성화되고 캔과 뚜껑, 인쇄석판 등의 수출이 늘어 품목이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내수시장도 스포츠드링크, 커피캔, 차류의 성장이 두드러져 제관시장은 10퍼센트 안팎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캔 리사이클 등 환경대응과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철강 소재회사 및 음료회사 관련 전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도 관심사입니다.

김창균 : 기계업계 역시 내수시장에서는 포장재 업계의 활성화에 따라 수요증감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부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며, 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수출선의 확보가 기대돼 그동안의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선창 : 연포장 업계는 93년도에 겪었던 과당경쟁 속의 제품가격 하락이 94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가격조정 등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간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공존공생의 기반 위에서 협력하고 해외시장에서 이미지 쇄신을 가져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업계의 자성이 요청됩니다.

사회 : 지금까지 나눈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업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계도와 함께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포장협회 같은 데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적극 나서야 함은 사실이지만 포장관련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문제해결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 협회도 업계의 공동 발전을 견인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가 업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영구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가운데는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업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포장협회 같은 관련 단체에서 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여론형성을 해나가야 함은 물론이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